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제주용기를
통한
미술교육
지역화방안
연구

김기영

2015

석 사 학 위 논 문

제주옹기를 통한
미술교육 지역화 방안 연구

- 초등학교 5,6학년 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rt Localization Method
of Art Education through Jeju Onggi
- Focusing on the Fifth and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김 기 영

2015년 6월

제주옹기를 통한
미술교육 지역화 방안 연구

- 초등학교 5,6학년 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rt Localization Method
of Art Education through Jeju Onggi

- Focusing on the Fifth and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

지도교수 임 춘 배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김 기 영

2015년 7월

김 기 영 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5년 7월

목 차

국문 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1	3
1. 제주의 흙과 옹기	3
2. 제주옹기의 유래	5
3. 제주옹기의 종류 및 쓰임새	8
III. 이론적 배경2	16
1. 지역화의 개념	16
2.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	21
IV. 지도의 실제	26
1. 교육과정 재구성	26
2. 교수·학습 과정안	28
V. 결론 및 제언	40
참고 문헌	42
ABSTRACT	43

표 목 차

<표 1> 제주옹기와 내륙옹기의 차이점	7
<표 2> 5,6학년 미술과 교육과정 연간 지도 계획	22
<표 3> 5,6학년 ‘제주옹기와 제주 문화의 아름다움을 찾아’	27
<표 4> 재구성 교수·학습 과정안 1	29
<표 5> 재구성 교수·학습 과정안 2	31
<표 6> 재구성 교수·학습 과정안 3	33
<표 7> 재구성 교수·학습 과정안 4	35
<표 8> 재구성 교수·학습 과정안 5	37
<표 9> 재구성 교수·학습 과정안 6	39

그림 목 차

[그림 1] 가마재임 위치에 따른 허벅	8
[그림 2] 내용물 용량에 따른 허벅	9
[그림 3] 부리의 모습에 따른 허벅	10
[그림 4] 큰 크기 향아리류 용기	11
[그림 5] 작은 크기 향아리류 용기	12
[그림 6] 제작용구로 사용한 용기	13
[그림 7] 음식용구로 사용한 용기	15

국 문 초 록

제주용기를 통한 미술교육 지역화 방안 연구

- 초등학교 5,6학년 과정을 중심으로 -

김 기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임 춘 배

본 연구는 세계화 교육과 더불어 지역화 교육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요즘 추세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독특성 있는 제주의 용기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용기의 개념과 종류, 쓰임새에 대하여 알아보고 전통문화를 미술과 교육과정에 지역화 내용으로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교수 학습 과정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주도는 화산섬이라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지방과는 다른 문화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용기를 탐구하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고장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미 습득한 지식들에 대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할 것이다. 미래를 주도해 나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독창적이고 고유한 문화유산의 전수일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미적감수성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들이 제주옹기를 통해 지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전통문화 고유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둘째, 제주의 자연과 고유한 문화에 대해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으며 이론을 배우고 직접 옹기를 제작해 봄으로써 작품에 대한 표현 의욕을 높이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이끈다.

셋째, 한 주제에 대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미술 표현활동을 하면서 그 대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미술 전 영역에 대한 아동들의 표현 능력을 이끌고 미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

제주 조상들의 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제주옹기는 우리의 슬기로운 지혜이며 자랑스러운 문화이다. 제주옹기를 통한 지역화 미술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미술표현을 하며 제주의 전통문화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미적 감수성과 그에 대한 전반적인 표현능력의 발전을 유도하며 우리 고향의 자연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제주옹기, 전통문화, 지역화학습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미술 시간에 찰흙 만들기를 하다보면 이런 저런 그릇 모양을 만들어 보는데 제주 특유의 그릇 모양을 만드는 아이는 매우 드물었다. 옹기란 사전적 의미로 찻물을 입히지 않고 구워 겉면이 거칠고 윤기가 없는 그릇(土器, 瓦器)과 오지그릇(陶器)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또한 옹기 입자 사이로 미세한 입자가 형성되어 있어 통기성이 탁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중 제주 옹기는 단지 그릇만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의 옹기는 타 지역의 옹기들과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옹기를 제작하는 옹기가마부터 타 지역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독특함을 지닌 제주옹기는 우리나라 옹기들 중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까닭에 내륙지방에 비해 소홀히 되고 있고 제주시민들 역시 우리 지역의 옹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물이 귀했던 제주의 경우 내륙에서 몇 십리를 걸어 해안의 용천대까지 물을 길러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제주의 옛날 사진에는 물 허벅을 짊어진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전통 문화의 고장에서 생활하는 우리 학생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드물다. 미래사회는 전통문화를 체계화해서 과학적으로 밝혀 전통과 현재의 융합의 척도가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그러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라는 학생들에게도 우수한 전통문화를 과학적으로 조명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주옹기는 특유의 재료, 화산섬의 토양을 빚어내어 고온에서 만들기에 여타 다른 옹기와는 차별화되는 성격이 있는데 정작 제주에서는 그러한 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미래 사회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의 과정이기도 한 전통문화의 과학적 조명은 좋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욱 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고, 초등학교 수업에 있어 지역화 관련 수업은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에 제주옹기의 특성에 대하여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제주옹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문헌을 통해 연구하여 보았다.

둘째, 제주옹기의 종류와 쓰임새를 살펴봄으로써 제주문화의 우수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현재 초등학교 5~6학년 미술과 교육과정 및 미술 교과서를 분석하여 재구성 및 지역화에 적합한 내용을 추려 내었다.

넷째,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제주옹기와 전통문화를 이용한 미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설단원을 구성하고 이를 위한 교수·학습 과정 예시안을 제시하였다.

제주 우리 조상들의 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제주옹기는 우리의 슬기로운 지혜이며 자랑스러운 문화이다. 이런 제주옹기를 통한 지역화 미술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제주의 특성에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주 환경의 아름다움이나 전통문화의 가치 등을 깨닫고 이들을 보전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 또한 함께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II. 이론적 배경 1

1. 제주의 흙과 옹기

제주는 연속적인 분화활동의 결과물로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해안선을 따라 대부분 흙빛의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화활동에 의한 제주도의 지질구조 형성과정은 기저분출기, 서귀포층 퇴적기, 용암대지 형성기, 한라산 형성기, 기생화산 활동기 등으로 나뉜다. 제주의 토질은 검거나 회갈색인 화산회토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면적의 70%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로 제주도의 남부와 동북부, 오름(기생화산)에 분포한다. 30%는 비화산회토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육지부 토양과 비슷한 암갈색토와 적황색토가 제주도의 북부와 북서부에 분포한다.(국립제주박물관, 2005, p8).

비화산회토의 특성을 보이는 논토양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서귀포시 대정읍지역과 제주시 해안동, 광령을 포함한 제주 북서부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은 과거 옹기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지역이다. 제주 흙의 점토는 크게 암갈색 토와 적황색토, 흑색회토, 화산암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주도에 속칭 뜬 땅으로 알려진 화산회토가 제주도의 남부와 동북부에 분포하며 검은색을 띠는 흑색회토이다. 육지부에 토양과 유사한 암갈색토와 적황색토는 북부와 북서부에 분포하며 제주옹기제작에 사용된다. 화산암재는 Pyroclastics의 일종으로 화산이 폭발할 때 마그마가 급속히 기포를 발생 하면서 폭발적으로 방출되면서 잘게 부서져 다공질의 가루로 만들어진 것으로 제주도에서는 흔히 '송'이라고 부르며 제주도의 오름이나 기생화산 주변에 분포한다.(오창윤, 2010, p64).

제주도는 화산폭발로 인하여 생성된 화산회토가 지표면을 덮고 있다. 토질은 찰기가 없고 가볍고 푸석 지며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러한 흙을 재료로 이용, 유약을 전혀 쓰지 않는 게 특징이며 전통방식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그 때문에 옹기들이 두껍고 조약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제주의 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제주옹기의 가장 큰 특징은 유약을 바르지 않는 것이다.

제주옹기의 원료인 제주 흙은 철 성분이 풍부해 유약을 바르지 않아도 내용물이 그릇에 스며드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해 주기 때문이다. 대신 옹기의 용도를 구별하여 고추장 담은 항(항아리)은 고추장만, 된장 담은 항은 꼭 된장만 담아야 했기에 과거 시집 온 새색시는 집안 어른들이 일러주는 항의 용도를 반드시 숙지해야만 했다. 둘째, 제주 흙이 지닌 우수성은 연기를 쐬면 정화력이 좋아진다는 점이다. 제주 흙으로만 만들어진 진짜 제주옹기에 물을 닿으면 이물질이 많지 않는 한 수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건 증명되었던 바이다. 셋째, 제주 흙은 청자, 백자를 만드는 흙보다도 입자가 곱다. 그러기에 숨을 쉬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토와 동일한 흙으로 만들어진 밀폐된 울집에서 바람과 햇볕을 최소화 한 상태로 장기간 자연 건조 해야 한다. 제주옹기는 예전부터 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고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던 제주문화의 숨겨진 정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옹기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어 지고 있는데 옹기란 사전적 의미로 찻물을 입히지 않고 구워 겉면이 거칠고 윤기가 없는 질그릇과 오지그릇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한자로는 ‘甕’ 또는 ‘瓮’이라 쓰기도 하는데 외국에서는 Onggi로 표기하고 있다.(정병락, 1998, p116).

원래 옹기란 그릇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조옹기 및 항아리를 말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옹기는 토기에서 한걸음 발전한 고화도 질그릇까지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옹기의 분류를 살펴보면 소성방법, 소성온도, 재질에 따른 분류 등으로 여러 가지로 나뉜다. 옹기는 소성방법에 따라 크게 질그릇과 오지그릇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질그릇은 유약이 발려지지 않은 상태를 기본으로 자연유에 의한 약간의 유약층이나 일제 강점기에 실시된 소금구이에 의한 얇은 유약층이 형성된 기물까지를 포함한다. 이것에는 섭씨 900도 이하에서 구워진 재질이 약한 질그릇과 섭씨 1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구워진 질그릇으로 나뉜다. 오지그릇은 찻물 유약이 입혀진 것을 말하며 소성온도는 섭씨 1100~1200도에 달한다. 오지그릇에는 자연유에 의한 붉은색 오지, 찻물유약의 갈색 오지, 유연유약의 적갈색 흑색오지, 내열성 소지의 흑색 오지, 석기 소지의 흑색오지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자연유에 의한 붉은색 오지는 제주도 옹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찻물유약의 갈색오지와 유연유약의 적갈색, 흑색오지는

한국의 옹기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고 기물의 용어 등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문양을 그리는 장식기법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제주옹기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잿물을 입히지 않고 돌가마로 구워 자연유에 의해 부분적으로 윤기가 있는 붉은색의 오지그릇과 낮은 온도에서 연기를 침투시켜 그릇표면이 검회색을 띠는 질그릇을 통칭하여 이르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정병락, 1998, pp41-45).

2. 제주옹기의 유래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옹기가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한 자료나 역사기록이 없어서 명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의 풍토를 기록한 각종 문헌에서 단편적으로 확인되는 식수 운반용 물 항아리, 즉 ‘허벅’의 사용 기록을 통해 옹기제작 개시시기를 대략적으로 유추 하고 있다.(정병락, 1998, p141).

현재까지 제주도에서 적갈색 토기 생산 이후의 회청색 경질토기나 청자, 백자 등의 경질도자기 생산유적이 확인된 적이 없다. 때문에 제주도에서 출토되는 각종 경질도자기는 모두 육지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고려시대에 자기그릇(청자)과 쌀이 생산되지 않는 제주도의 현실로 이러한 물건들이 전라도 지방의 장사꾼들에 의해 제주도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옹기제작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물항아리(허벅)의 사용 시기를 통해 유추해 볼 수밖에 없다.(이청규, 1995, p25).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풍속조(1481~1530)와 김정의 충암집「제주풍토록」에서 제주도 옹기가마의 구조와 그 연원/김정선(1520~1521)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등에 무통을 짊어지고 다니고 머리에 이는 자가 없다. 한라산과 제주 고을 지역에서는 샘과 우물이 매우 적어서 마을 주민들이 5리나 되는 지역에서 물을 길어오는데 이를 가까이 있는 물이라고 한다. 혹은 하루에도 한두 번 정도 길어오는데 짠 샘이 많다. 물을 길어오는데 반드시 나무통을 등에 지고 가는 것은 많이 길어 오려고 하기 때문이다.(이청규, 1995, pp39-41).

무릇 지는 물건은 대부분 여자들이 등에 지고 간다. 이 두 기록은 16세기 초반 제주도 물 운반 실태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다. 물 운반 시 육지부와는 달리 등에 지고 운반한다는 내용과 물 운반 용 옹기가 옹기항아리가 아닌 나무통임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물 운반 시 옹기항아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옹기를 전혀 제작하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지방에

비해 식수를 구하기 어렵고 먼 거리를 이동하여 식수를 구해 와야 하는 제주도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당시 물 운반용 용기는 모든 가정의 필수품으로 꼽을 수 있으며 만약 용기제작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면 나무통보다 무게가 가벼운 용기항아리 제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 운반용 용기가 나무통에서 물항아리로 바뀌는 시점 즈음에 제주도에 용기제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김정선, 2010, p18).

제작초기 물항아리의 모습이 현재 알려진 ‘허벅’의 형태, ‘허벅’이라는 모습이 타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제주의 물 운반용 용기로, 식수가 부족했던 환경으로 인해 멀리까지 가서 물을 운반 해와야 했던 제주민의 오랜 경험에 의해 탄생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이청규, 1995, pp51~53).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 단편적인 언급을 통해 제주도로 유입되는 기술의 경로를 추정해 보았다. 고대의 해상을 통한 이동은 연안의 육지를 지킴삼아 항해하는 허벅은 어깨부분이 매우 넓어 제작하기에 까다로운 기형으로 분류된다. 허벅이나 용기와 같은들 품목을 모두 전라도 지역의 생산품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물류의 이동거리, 비용 등을 따져볼 때 전라도 지역 생산품이 우선적으로 유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므로 이러한 교류의 양상을 통해 제주도에 용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시점의 기술 유입 경로도 이와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체 용기 제작술 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릇을 만드는 행위보다 가마를 축조하는 기술이 더욱 고난위도의 작업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기술자의 직접적인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기술의 유입처 또한 왕래가 잦았던 전라도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국립제주박물관, 2005, pp18-24).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육지부의 용기가 전라도 지방을 통해 제주로 유입되다가 용기제작기술이 들어오면서 용기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 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제주의 환경에 적응하며 생겨난 것이 제주용기라고 할 수 있다. 유입된 제주용기는 점차적으로 제작되어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활발하게 제작되었고 제주의 가정 어느 곳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그 수가 많이 제작되었다. 이처럼 활발하게 제작되어 사용되던 제주용기는 1948년 4.3사건을 전후로 플라스틱 용기의 영향, 식생활의 변화 등 현대화의 바람과 맞물려 70년대 초 역사 속으로 점차 사라지게 된다. 제주용기가 이 시기에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 이유는 제주 용기의 제작 운영방식과도 맞물린다. 제주의 용기제작은 철저하게 분업에 의해 세분화되어 작업이 이루어졌다. 기물을 성형하는 대장(도공), 토립을 만들고 기물을 관리하는 건애, 굴(가마)에서 기물을 소성하는 불대장, 가마축조를 맡아 하는 굴대장 등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굴

(가마)의 운영은 마을 단위로 굴계(굴제)를 형성하거나 조직을 이루어 운영되었다. 이런 체계로 용기 제작이 이루어지면서 70년대 초 용기제작이 단절된 시기를 즈음하여 각각의 전문화된 영역에만 집중하여 작업하다보니 어느 한 영역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용기제작을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현대화의 바람과 맞물려 제주용기의 단절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용기 업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은 감귤농사와 다른 업에 종사하게 됐으며 이후 제주 돌가마를 비롯한 용기 관련 유적들은 농업구조의 변화(굴 농사)와 도로공사, 시간에 흐름 등에 의해 많은 곳이 사라졌다. 현재는 도 기념물로 보호 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제주용기와 내륙용기의 차이점

	내륙지방 용기	제주용기
가마의 재료	토석(흑벽돌)	돌(현무암)
가마의 구조	통가마 형태로 구성	통가마 형태로 독특한 구조(부장쟁이, 불벽, 부르죽)
제작과정	표면처리:젓물(재, 약토의 혼합)사용	표면처리: 유약 사용하지 않음
소성재료	장작	장작, 섬피(나뭇가지뭍음)
기형	기후에 의한 형태를 보임 경기도: 오이씨의 형태 전라도: 배가 나온 형태	기후에 의한 형태를 보이지 않음 -흙과 용기제작과정 고려한 형태 (제주만의 독특한 기형 : 허벅)
문양	유약(젓물)처리 후 손을 이용한 다양한 문양(의도적)	소성과정에서 소성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문양(자연적)
용어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용어는 비슷함	내륙에서 보이는 용어도 있지만 제주만의 독특한 형식에 용어를 보임 (예:가마-굴,항아리-씨항, 것항 등)

3. 제주 용기의 종류 및 쓰임새

가. 운반용구

1) 허벅

예로부터 제주에서는 물이 귀해 먼 거리의 물을 길어다 식수로 사용하였다. 이때 물을 길어 나르던 용기가 허벅이다. 제주 전통용기에 있어 허벅은 가장 중심이 되는 기형이며 제주용기를 상징하는 기물이다. 타 지역의 용기에 비해 다른 특징과 우수성을 지닌 허벅의 독특한 미감이 있기 때문이다. 허벅은 알배, 중배, 윗배의 적당한 배내기와 부리가 있다. 이 허벅 부리를 목질로 만드는데 이런 독특함 때문에 내륙지방의 용기대장들은 만들 수 없었으며 제주도의 전통 용기에 있어서 허벅이 중심이 될 만큼 허벅을 잘 만드는 도공이 명성을 얻었다. 허벅은 입부분의 차이와 크기로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용목적(용도)에 따라 아주 다른 용어로 사용된다. 이 허벅을 중심으로 제주도의 용기는 위에 올라가는 허벅은 옷데기 허벅, 밑에 재임되어 위에 기물 무게에 의해 자연스럽게 찌그러져 원문이 새겨진 허벅을 알데기 허벅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허벅은 허벅, 바룻 허벅, 대바지, 허벅등덜기, 허벅능생이, 허벅방춘이 등 크기와 모양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이영자/배두식, 2006, p24-36)

이 크기의 차이에 의한 형태의 변화는 크기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사용도 있겠으나 제주인의 삶에 있어 노동을 분업화하려 했던 흔적이며 제주 용기의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림 1] 가마재임 위치에 따른 허벅

- 알데기허벅: 알데기허벅은 노랑굴의 재임 시에 아랫자리에 놓이며 개장태를 씌우고 구운 허벅을 말한다. 제주도의 굴은 대부분 자연 경사를 이용하여 축조되었다. 재임할 때 그릇이 앞으로 쏠려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장태를 똑바로 씌우지 않고 뒤로 기울어지게 씌운다.
- 웃데기허벅: 노랑굴에서 구워진 허벅이다. 흙 자체의 발색이 좋아 구울 때 잿물을 사용하지 않고 구우며 연료인 나무재가 떨어져 입혀진 자연유만으로 반질반질하다. 다양한 빛깔이 허벅의 독특한 미감을 나타낸다.



[그림 2] 내용물 용량에 따른 허벅

- 바룻허벅: 일반 허벅보다 크기가 높고 큰 허벅으로 특별히 주문에 의해 만들어졌다. 물을 길고 다녀야 할 거리가 먼 곳에서 사용되는 일이 흔했으며, 크기가 컸기 때문에 남자 어른이 지고 다녔다.
- 대배기: 형태가 일반허벅과 비슷하며 크기가 허벅보다 작은게 특징이다. 이 대배기는 일반 성인여성이 아닌 어린아이, 나이가 많아 힘이 적은 할머니들이 물을 길어 나르던 허벅이다. 15-17살의 소녀들이 지고 다니며 물을 길었던 용기이다.



[그림 3] 부리의 모습에 따른 허벅

- 허벅등덜기: 허벅과 비슷하나 부리의 모양이 다르다. 허벅등덜기의 부리는 턱을 만들어서 단이 있고 허벅보다 목이 더 좁다. 마치 깔대기와 비슷하며 허벅보다 공기의 접촉이 적기 때문에 주로 술이나, 기름을 운반, 저장할 때 사용하였다.
- 허벅방춘이: 크기와 형태, 부리모양 등이 허벅과 비슷하지만 부리가 허벅보다 낮고 넓은 구조를 하고 있다. 장류나 술의 저장용기로 사용했으며 제주의 풍습 중에는 사돈집에 큰일(상)이 나면 팔죽을 써서 가져가 큰일을 당해 정신없을 사돈을 위로하는 풍습이 남아있다. 이때 죽을 써서 옮기는 도구로 사용하던 용기가 허벅방춘이다.
- 허벅능생이: 씨앗을 보관하거나 장류를 담아둘 때 사용했던 도구로 허벅과 모양, 크기는 비슷하나 부리가 허벅보다 낮고 넓다. 몸통은 허벅과 같으며, 방춘이의 부리보다 더 낮으며, 방춘이와 같이 장류를 보관한다. 방춘이의 부리는 바깥으로 펼쳐져 있는데 반해, 능생이의 부리는 약간의 각이 지면서 위쪽을 향한다.

나. 보관용구

- 1) **항아리류:** 음식과 곡식의 저장용으로 주로 쓰였으며 크기에 따라 대항, 옷통개, 알통개, 망대기 등 허벅과 같이 여러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리었다.



[그림 4] 큰 크기의 향아리류 용기

- 대황: 크기가 가장 큰 기물로 옷통개 보다 큰 향아리를 말하며 춘두미부터 대황이라 불렀다. 완성된 높이가 대략 120cm정도 까지 되는 것들도 있다.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만들지 못하고 건조를 해가면서 며칠에 걸쳐서 제작된다. 사용하는 사람의 주문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질흙'의 상태, 굴의 크기와 구조, 도공의 생각에 따라 약간씩 모양이 다르다.
- 옷통개: 일반적으로 제작하는 한 줄에 포함되는 그릇 중에서 가장 크다. 간장이나 된장을 담거나, 곡식저장용으로 열 말에서 열 두말들이 크기이다. 윗배에 흙을 가래떡처럼 얇게 말아서 두 줄의 띠를 둘렀는데 이를 '춘두미' 솥통개 라고도 한다. 이 줄은 향아리 안에 벌레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며, 향아리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사를 묶어 둘 때 사용한다.
- 알통개: '암통개'라고도 한다. 다섯 말에서 여섯 말들이의 크기이며 식구가 많지 않은 집에서 장 담을 때 사용한다. 크기가 50-60cm 정도로 옷통개보다 작지만 무게는 무겁다. 굴 안에서 기물을 쌓을 때 알통개를 바닥으로 받치고, 이 위에 옷통개를 올린다.



[그림 5] 작은 크기 향아리류 용기

- 망대기: 짓갈을 담을 때 주로 사용하였으며 크기가 30-40cm 정도로 작은 향아리의 종류이다. 망대기의 종류로는 망대기 양 옆에 귀가 있는 귀망대기와 소성할 때 대바지를 바치는 대바지 망대기가 있으며 이 대바지 망대기보다 더 작으며 애기 대바지를 바치는 애기 망대기가 있다
- 소능쟁이: 굽과 전이 크기가 다배기하고 같은데 30cm내외로 제작되어 씨앗을 저장하는 저장용구 등으로 사용되었다. 소성할 때 소능쟁이 위에 대바지를 올려 소성하였기 때문에 대바지 능쟁이 라고도 한다.

- 조막단지**: 한 굴치를 만들 때 제일 마지막에 조막단지를 만든다. 조막을 떼기 전에 만드는 단지여서 조막단지라고도 하고, 조막처럼 작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다. 이 조막단지를 비롯한 단지류들은 척박한 제주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생긴 풍습인 ‘조낭정신’의 도구로 사용된 조낭단지로 쓰이기도 했다. 크기가 20cm내외로 양념을 담는 용도, 간장, 된장항아리에서 간장이나 된장을 담아 부엌에서 임시로 저장하며 쓰던 용기이다.
- 수저통**: 수저를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 물이 쉽게 빠지도록 되어 있다.
- 팽(병)**: 술이나 물, 식초 등을 담는 용도로 크기가 15cm에서 30cm내외로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꾸밈이 없는 자연적인 순수한 선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 술병은 물을 길어 마시거나 귀한 손님이 올 때, 술을 저장할 때, 고소리 술을 제작할 때 술을 받아내는 용도 등 다양하게 쓰였다. 종류로는 허벅 등덜기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등덜기팽, 대배기등덜기 모양으로 고소리 술을 빚을 때 사용하는 바지팽, 식초를 담는 좃팽, 검은굴에서 만들어진 지새팽, 주로 물을 갖고 다니던 병으로 자라병과 비슷한 납작팽, 그리고 담는 용도로 사용하던 죽절팽과 술팽등이 있다.

다. 제작용구



[그림 6] 제작용구로 사용한 용기

- 시리(시루)**: 시리는 시루의 제주도 말이다. 술 위에 얹어서 떡을 만드는 용구로 낮은 온도의 검은굴에서 대부분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시리에 손잡이가 달려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손잡이가 없는 것도 있다. 시리의 바닥은 평평하고 수증기 구멍이 있는데 구멍 개수가 5개 혹은 7개이며 홀수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며 표면장식은 간혹 음각의 티를 두른 시리가 보이나 대부분은 장식을 하지 않는다.
- 고소리**: 제주의 전통주(酒)인 고소리 술을 만들어내는 도구이다. 시루처럼 술 위에 얹혀 사용하는데 수증기가 술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들기가 어려워 주문 제작하였는데 그 값이 한 줄 갑에 해당된다. 고소리는 보통 70-80cm내외, 지름 35-40cm내외로 허리 부분이 잘록하여 두 개의 향아리를 맞댄 형을 지니고 있다. 마치 장구를 세워 놓은 것처럼 생겼다. 잘록한 부분 한쪽에 술이 흘러나오도록 대롱이 달려 있으며 맨 윗부분은 장태형 같은 그릇을 얹혀 술을 고을 때 찬물을 부어 넣으면 고소리 밑의 술에서 끓는 증기가 고소리 윗부분의 찬 곳에 닿아 냉각됨으로써 술이 되어 가운데 대롱을 통해 흘러나오게 된다.
- 떡본**: 떡살의 제주도말이다. 떡을 만들 때 도장을 찍듯 눌러 떡위에 무늬를 찍어낸다. 떡살은 떡이나 절편을 박아 만드는 떡본, 또는 떡손이라고 한다. 떡살의 재료로 나무로 만든 것은 둥근 형이 대부분이며 무늬는 장수와 해로를 바라는 긴가락의 국수무늬, 우주의 근원을 나타내는 태극무늬, 하늘을 상징하는 동그라미 무늬, 바람을 나타내는 길상무늬 등이 있다.
- 토제확**: 확은 보리를 갈거나 깨, 고추 등을 갈아 쓰던 도구로서 확은 둥글납작한 모양, 절구형, 8자형, 소라형 등 여러 형태로 만들어 확독에 음식물을 넣고 확으로 갈아 사용하였다. 음식의 제 맛을 잃지 않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아낙네들이 늘 곁에 두고 사용했다.

라. 음식용구



[그림 7] 음식용구로 사용한 용기

- 장태**: 입의 넓이가 항아리보다 넓어서 항아리 뚜껑으로 많이 사용하였으며 간혹 집안에 큰 행사 때 동이의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가마 채임시에는 그릇을 덮어주는 역할을 했다. 또한 제주옹기에서 볼 수 있는 장태는 육지와 달리 손잡이가 달린 것이 매우 드물다.
- 코사발**: 사발의 형태와 비슷하며 물과 같은 액체를 따르기 좋게 코가 제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이나 술, 간장, 식초 등의 액체를 주둥이가 작은 그릇에 옮길 때 사용하거나, 주전자 대용으로 쓰인다. 코의 형태가 둥글게 된 것, 구멍을 내고 코를 붙여 놓은 것 등 여러 종류가 있다.
- 주전자**: 높이가 보통 15cm내외로 제작하며 손잡이를 몸체와 따로 제작하여 사용했다. 손잡이는 철, 나무를 이용하기도 하고 제주의 전통모자인 정당 별립을 만드는데 쓰는 멍멍이 덩굴로 손잡이를 만들어 사용하기 도 했다.
- 양념단지**: 양념이 지니는 좋은 향기나 맛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는 담는 용기에 따라 맛과 향이 다르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옹기로 만들어진 그릇을 생활도구로 사용하여 왔다. 소금, 깨, 고춧가루, 마늘쪽 등 수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마른양념을 주로 넣어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다.

Ⅲ. 이론적 배경 2

1. 지역화의 개념

가. 교육과정의 지역화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교육과정 제정의 지역화와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로 대별된다. 교육과정 제정의 지역화는 교육과정의 제정이나 결정 권한을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에서 담당함을 뜻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지역이나 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제고시킬 것을 의도하는 지역화를 말한다. ‘지역’은 통상적으로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의 의미로 쓰이며 지리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나 교육과정에서 ‘지역’은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영역”의 의미로 보아 향토 또는 지역사회 등 좀 더 확장된 영역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 즉,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단순히 행정 구역에 의거한 지역화가 아닌 주민들의 생활, 문화적인 양식을 포함하는 지역화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오병연, 2000, p4).

교육과정 지역화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과 지역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단위 학교별로 학생, 학교,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도록 교육 목표를 조정하거나, 교육 내용을 추가·보완 또는 삭제·통합하기도 하고, 지역 사회의 자연 자료, 사회적 자료, 문화·역사적 자료 등을 교육에 활용하거나, 교육 분량에 따른 학습 시간의 늘임과 감축은 물론 계절과 행사 및 지역의 여건에 따라 지도의 순서를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일을 말한다.(오병연, 2000, pp5-9).

또한 교육과정 지역화의 개념을 사회적 사실과 현상을 지역에서 찾아 교재화하는 것으로 학교의 여건, 학생의 심리적, 사회적 배경까지 고려하여 지도할 내용들을 편성·운영하는 것이며, 지역화 학습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과 개선의 의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 미술과 지역화의 필요성과 의의

1) 미술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필요성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제 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및 ‘지역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확대’라는 방향을 잇고 있으며,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화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개정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7, p.141).

과거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체제는 그 개발과 운영이 중앙에 있어 주로 국가적, 사회적인 요구나 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나 지역사회 또는 학습자인 학생들의 요구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웠으며, 교육과정의 실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도 획일적이고 관료적이어서 지역사회의 상황과 유리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은 중앙에서 의도하는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중앙 집권 형이었던 교육과정을 제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제 7차 교육과정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거치며 지역과 학교의 재량권이 점점 확대·강조되고 있다.

즉, 어떤 교육과정이란 국가적, 사회적인 요구 측면에서 정당성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지도 대상인 학생들,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욕구에 충족되지 못하거나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건에 부적합하여 목표성취에 장애를 초래한다면 그 교육과정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학생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 지역사회의 변화,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술 교과는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교과이다. 지역의 자연환경은 어떠한지, 그 지역의 전통문화가 지역의 미술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지역에 어떤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는지 등 다양한 주변 요인에 따라 학생들의 미적체험 내용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지역 사회의 회화, 조형, 건축 등의 미술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미적인 안목을 기르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실정에 맞는 미술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2) 미술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의의

미술과 교육과정을 지역화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의 특성을 이용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를 학교 교육과정 상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을 통하여 학생들은 지역의 환경이나 문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높이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살린 개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전국 모든 학교가 동일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로 획일화

된 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 흥미, 소질과 학부모의 요구, 교사의 자율성 등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역화 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어 학생들의 개성이나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고 학교는 지역적인 특색을 갖추어 다른 지역이나 학교와 차별화된 학교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과서 중심 교육이 학생들을 고려한 교육과정 중심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지역화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들의 실태, 학교의 실정,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재구성한 교육과정이므로 교과서 중심 교육 체제보다 학생들을 더 배려하고 존중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주체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아닌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이다. 주어진 교육과정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교사들은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게 된다.

다. 지역화의 내용과 방법

1) 교육과정 지역화의 내용

가) 교육과정 지역화의 근거

미술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에 잘 나타나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의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권한은 국가에 주어져 있다.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 시·도교육청, 학교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시·도 교육청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각 급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 급 학교에 제시한다.

셋째, 지역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초로 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관내의 초·중학교에 제시한다.

넷째, 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교과부, 2007, pp.199-207).

즉, 각 급 학교는 교육과정의 실천의 주체로서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교

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지역 교육청의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 학교의 특수성, 지역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지역화 내용의 선정

미술 교과서나 지도서 등의 교과용 도서에 제시된 내용은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 교과서가 곧 교육과정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거나 또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는 관행이 교육 현장에 만연해 있다.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특히나 교육과정의 재구성 및 지역화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학교 교육은 교과서 위주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미술과 교육과정을 제대로 지역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어린이들이 미적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삼고, 지역의 특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화 재구성을 위한 학습내용의 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전금순, 2009, p.10).

우선 학습내용 선정 시 지역사회 또는 생활 주변에서 자료를 쉽게 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시설, 교사와 어린이의 능력에 적합한 내용이어야 하며 지역화 단원은 내용을 무리하게 지역화하거나 지역화 과정에 있어 편협한 내용만을 다루어 일반적인 내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은 향토의 미화와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 문화재와 고적지에 관심을 갖고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다) 미술과 교육과정의 지역화 요소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재구성 및 지역화를 할 수 있는 요소로 지도 내용, 학습 시기, 단원의 차시 및 시간, 지도자, 학습 장소, 학급 조건, 수업 형태 등을 들 수 있다. (전금순, 2009, pp.10-11).

먼저 지도내용은 학교 실정,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 보완·강조·대치·첨가하며 학습 시기는 계절, 시사, 학교행사, 지역의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단원의 차시 및 단위 시간은 지역의 특수성, 학생의 능력, 의도된 목적, 교재의 성격에 따라 조정하며 지도자는 자원인사, 전담교사, 팀티칭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학습 장소는 생활 전 영역, 학교, 가정, 지역에서 적절한 곳을 선택하며 학급 조건은 학급 구성원의 수, 학생들의 적성이나 흥미, 신체 및 생활조건 등을 고려한다.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수업 형태는 미술관·박물관 답사, 미술가의 생애나 작품 등에 대한 감상 활동, 조사·관찰활동, 소집단 개별수업 등으로 다

양화를 띠한다. 이러한 미술과 교육과정 지역화는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흐름이 고정되지 않고 학교의 상황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수업의 효과와 학생들의 수업 후 변화 등에 따라 더 나은 수업을 위하여 자유롭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위 수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과정 지역화의 방법

학교 단위 미술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방법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①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 환경 등의 지역 특수성, 학생과 학부모 실태, 교직원 현황, 교직원·학생·학부모의 요구, 학생들의 미술과 성취 수준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미술과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서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적용한다.
- ② 학습 내용은 지역화를 하더라도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에 적합하게 선정되어야 하며, 각 영역별 학습 내용 간의 관련성, 학년 군별 학습 내용간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③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동기화 과정에 비중을 둔다.
- ④ 학습 내용에 배당된 시간을 고려하여 제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재 선정시 학생들의 직접적인 흥미나 관심, 수준을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⑤ 수업 제재나 학습 목표에 따라 학생들에게 알맞은 학습 과제를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학습 과제는 개인별 학습 과제, 모둠별 학습 과제, 반 전체의 학습과제 등으로 수업 제재나 학습 목표에 적합하게 선정한다. 또한, 탐구형 학습 과제, 제작형 학습 과제, 문제 해결형 학습 과제 등 다양한 과제 유형을 고려한다.
- ⑥ 학습 내용과 방법 및 수업의 시기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수성, 행사, 계절, 학생 수, 시설 및 용구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한다.
- ⑦ 타 교과와의 학습 내용상의 연계를 고려하며 미술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다. 이때 재구성은 다양한 요건을 실태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된 사항의 순서 및 비중 등을 조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2.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

가.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

2007년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미술교육의 목적을 미술이라는 교과 특성 살려 바람직한 인간의 성장을 돕는데 두고 있으며, 학교 미술교육의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성격을 강조하여 오늘의 시대 문화적 상황을 미술 교과의 성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수준, 학교의 상황, 지역 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지역화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미술과의 성격 중 미술교과 내용 영역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미술 교과 내용 영역은 ‘미적체험’, ‘표현’, ‘감상’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미적체험’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자연과 시각 문화 환경에 대한 탐색, 탐구, 이해, 판단 등의 학습활동을 전개한다. 이 영역은 형성하는 판단 과정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표현’은 주제, 표현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과정, 표현의 확장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주도적으로 나타내는 영역으로 이 영역의 지도는 표현 매체와 방법에 대한 감각과 기능, 표현 과정을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해 나가는 조직적인 능력을 기르게 한다. 또, 표현 활동과 다른 영역을 관련짓는 적용 능력과 태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감상’은 미술 문화의 이해, 비평, 향수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를 준비하는 영역으로 이 영역은 인지적인 접근을 통하여 미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비평적인 언어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토대로 미술을 문화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 할 수 있으며, 미술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교과부, 2010, pp.7-8).

이상을 정리하면 ‘미적체험’의 대상이 자연과 시각 문화 환경이라는 점에서, ‘표현’은 학생들의 학습 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감상’은 미술을 문화적 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지역적인 색채를 입힌 재구성이 더욱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위해서 <표 2>에서 5~6학년

미술과 국가 수준 교육과정 연간 지도 계획을 정리하였다. 연간 지도 계획은 가장 기본적인 예시 안으로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며 지역적 색채를 살린 교육과정을 재구성 할 수 있다. (노부자 외 5, 2014, pp42-43).

<표 2> 5, 6학년 미술과 교육과정 연간 지도 계획

대단원	소단원	단원목표	학습활동
			■:미적체험 ○:표현 ▲:감상
자연 환경과 미술	1. 자연과 함께하는 미술 (기초)	자연환경에서 선, 형, 색의 조화, 변화, 균형, 대비를 찾아 강조하여 표현할 수 있다.	■자연에서 조형요소와 조형원리 찾기 ○자연에서 찾은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강조하여 표현하기 ▲작품 감상하기
	2. 다양한 색의 변화 (기초)	색의 채도와 명도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느낌을 살려 표현 할 수 있다.	■색의 채도와 명도의 변화과정 이해하기 ○명도와 채도의 변화를 이용하여 표현하기 ▲작품 감상하기
색의 활용	3. 색으로 본 세상 (심화)	생활 속에서 색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색을 활용하여 표현 할 수 있다.	■생활 속 색의 기능 찾기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배색하여 생활에 활용하기 ▲작품 감상하기
	4. 광고 읽기 (기초)	생활 속 다양한 광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해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제로 공익광고를 제작할 수 있다.	■생활 주변 광고에서 특징과 주제 찾기 ○공익광고 만들기 ▲광고 감상하기
시각 문화 환경과 미술	5. 생활 속 미술 (심화)	주변 환경의 특징을 생각하여 생활 속 미술이 주위와 어울리는지 토론할 수 있으며 새롭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주변의 환경을 탐색하고 특징 찾아 토론하기 ○공간 예술가가 되어 주변 환경을 새롭게 꾸미기 ▲새로워진 공간 감상하기

경험 표현	6. 관화로 본 생활 모습 (기초)	일상생활의 경험을 여러 가지 관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가지 관화의 특성 이해하기 ○여러 가지 관화 짚기 ▲관화 작품 감상하기
	7. 우리들의 일상 (심화)	우리들의 생활 모습에서 찾은 주제를 재미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 속에서 생활 모습 발견하기 ○재미있는 일상생활 표현하기 ▲재미있게 표현된 부분 찾기
관찰 표현	8. 관찰하여 나타내기 (기초)	생활 주변에서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을 관찰하고 특징 이해하기 ○평면이나 입체로 표현하기 ▲관찰 표현한 작품 감상하기
	9. 움직이는 사람들 (심화)	동세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사람들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여 생동감 있게 동세를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들의 동세 이해하기 ○평면이나 입체로 동세 표현하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10. 그림에 담은 풍경 (심화)	주변 풍경을 관찰하고 여러 가지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생각하며 원근감이 나타나도록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형 요소와 원리 이해하기 ○원근감을 살려 다양하게 표현하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다양한 표현	11. 유쾌한 상상 (기초)	환상과 상상의 세계를 새로운 재료와 방법을 활용하여 평면이나 입체로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에 나타난 상상의 세계 감상하기 ○상상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기 ▲작품 감상하기
	12. 이것도 미술 재료 (기초)	주변의 물건을 탐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성 있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탐색하기 ○주변에서 발견한 것들을 활용하여 입체로 표현하기 ▲작품 감상하기
	13. 추상으로 나타내기 (심화)	추상 미술에서 단순화와 다양한 표현 방법을 탐색하고 여러 가지 주제로 표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상 작품의 특징 이해하기 ○대상을 단순화하여 추상으로 표현하기 ▲작품 감상하기

전통 미술	14. 쉽게 배우는 수묵 채색화 (기초)	수묵 채색화 기법을 이해하고 동물과 식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전통 미술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묵 채색화 기법 살펴보기 ○수묵 채색으로 동물과 식물 그리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15. 판본체, 궁체 쓰기 (기초)	판본체 4자, 6자를 구성하여 어울리게 쓰고, 궁체의 기본 운필을 익힌 뒤 2자를 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본체와 궁체의 특징 이해하기 ○판본체로 쓰기, 궁체의 기본 획 쓰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16. 궁체와 함께 (심화)	궁체의 운필과 자형의 특징을 알고 어울리도록 쓸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궁체로 쓰기 ○궁체로 이름 쓰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디자인과 생활	17. 웃음을 주는 디자인 (심화)	생활용품의 쓰임과 특징을 탐색하고 재미있는 발상으로 새롭게 만들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미있는 생활용품 찾기 ○재미있는 발상으로 생활용품 만들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18. 민속 공예로의 여행 (기초)	여러 나라의 민속 공예품을 체험하고 특징을 찾아 표현하며 민속 공예품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나라의 민속 공예품 체험하기 ○여러 가지 재료로 민속 공예품이나 민속 인형 만들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19. 건축 모형 만들기 (심화)	건축물의 기본 형태를 활용한 사례를 탐색하고 구조를 생각하며 건축물 모형을 만들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구조 탐색하기 ○건축물을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기 ▲건축물 모형 감상하기
영상 표현	20. 사진으로 본 세상 (기초)	대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사진으로 나타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기의 앵글 이해하기 ○다양한 사물 찍기 ○연상과 착시 사진 찍기 ▲사진 작품 감상하기
	21.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 (심화)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니메이션의 원리 이해하기 ○종이를 오려서 애니메이션 만들기 ○물체를 움직이거나 그림을 그려서 애니메이션 만들기 ▲애니메이션 작품 감상하기

감상	22. 알쏭달쏭 현대 미술 친하게 지내기 (기초)	현대 미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하여 현대 미술을 애호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 미술의 특징 이해하기 ▲현대 미술 감상하기 ○현대 미술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고, 작품 모음집 만들기
	23. 전통 미술 이야기 (심화)	전통 미술을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 미술의 특징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미술을 탐색하고 특징 이야기하기 ▲전통 미술의 특징을 살피면서 작품 감상하기 ○전통 미술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24. 우리들의 전시 (심화)	전시 의도와 과정을 이해하고 전시를 계획할 수 있으며, 올바른 태도로 감상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의 의도와 주제 알아보기 ○모형 전시장 만들기, 학급 전시회 하기 ▲전시회 관람하기

IV. 지도의 실제

1.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들의 표현 의욕을 가지고 즐겁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재 및 활동 방법을 선정하고, 그 속에서 제주옹기의 아름다움과 전통문화의 가치, 보전의 필요성 등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5~6학년의 미술과 교육과정을 재구성 하였다. 미술교육의 주된 활동인 미적 체험활동, 표현 활동, 감상활동은 생활주변에 있는 미술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자연과 가까운 주변에서 미적 대상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을 통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생기 있고 풍부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서 미적 대상을 관찰 발견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으로 하여금 미술 수업과 실생활간의 거리감을 없애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아름다운 자연 및 문화유산에서 미적 감수성을 찾고 그것을 표현 할 수 있도록 학습 주제와 활동을 선정하고 미적체험 및 표현 영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하여 지도 계획을 수립하였다.

가. 단원 재구성

초등학교 5~6학년 ‘제주옹기와 제주의 문화의 아름다움을 찾아’ 단원을 재구성 하였다. 우선 미적체험 영역에서는 제주옹기에 대한 사진, 영상 등의 자료나 학생들의 경험을 토대로 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표현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즐겁고 쉽게 활동할 수 있는 그리기, 만들기, 꾸미기 등의 활동을 통해 제주옹기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상 영역에서는 제주옹기의 특성을 담아낸 작품 또는 고장의 미술관 등을 이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을 재구성한 내용을 <표 3>로 정리하여 보았다.

<표 3> 5, 6학년 '제주옹기와 제주의 문화의 아름다움을 찾아'

영역	학습주제	학습내용	차시	관련 단원
미적 체험	제주 옹기를 관찰하고 제주 문화의 멋을 느끼기	제주옹기의 특징을 알고 제주 문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조사해온 자료를 통해 제주 옹기의 특징 알기 -자료에서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 알기 -기후에 따라 변화는 제주의 아름다움 발표하기	기초 (2)	1-1. 자연을 통한 미술의 발견
	제주옹기 공예 알아보기	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다양하게 탐구한다. -제주옹기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기(전통,유래) -제주옹기를 만드는 법, 가마에 대해 알아보기 -다양한 제주옹기 중 생활용품 찾아보기 -제주 흙을 이용해서 제주옹기 모양 만들어보기	기초 (2)	5-1. 내가 만드는 생활용품
표현	제주옹기 관련 생활모습을 수채화로 표현하기	여러 가지 표현의 특징을 이해하고 방법을 익혀서 표현한다. -수채화의 특징 알아보기 -제주옹기의 표면적 특징, 외형 찾아보기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수채화로 표현하기	심화 (2)	4-2. 수채화의 느낌을 살려
	제주옹기와 제주의 특성을 살려 아름답게 꾸미기	주제와 표현 방법에 알맞은 조형 요소와 원리로 표현한다. -제주옹기가 있는 전통가옥을 찾고 이야기 나누기 -제주의 전통적인 공간 활용에 대해 알아보기 -제주옹기를 소재로 주변과 어울리게 공간 꾸미기	심화 (2)	7-2. 평범한 공간을 아름답게
감상	제주옹기 장인들에게 편지쓰기	제주옹기의 의미와 감사함을 생각해본다. -제주옹기와 전통문화 감상하기 -감상활동지 작성하기 -장인들에게 감사의 마음 편지쓰기	기초 (2)	6-1. 작가에게 쓰는 편지
	미술관에서 제주옹기와 제주 특색 찾아보기	제주의 전통과 아름다운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다. -전통 미술을 체험하고 중요성을 이해하기 -도내 미술관에서 제주의 특색 찾아보고 발표하기	심화 (2)	12-2. 멀고도 가까운 미술관

2. 교수·학습 과정안

독특한 멋을 지닌 제주옹기와 아름다운 제주의 문화와 함께 하는 실제적인 미술활동은 학생들에게 현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제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문화의 전통, 우수성에 대해 알고 나아가 제주의 소중함과 보존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재구성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상상력과 창의성을 펼치며 제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미술활동 교수·학습 과정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가. 5~6학년 ‘제주옹기와 제주 문화의 아름다움을 찾아’ 교수·학습 과정안

1) 제주 옹기를 관찰하고 제주 문화의 멋을 느끼기

① 학습목표

- 제주옹기를 통해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발견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살아 있는 제주 문화의 멋을 느껴본다.

② 학습내용

- 살아있는 자연과 거기에 어우러진 제주문화를 관찰하며 그 속에 있는 제주 옹기의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③ 재료 및 용구

- 교사: 제주옹기의 사진, 멀티미디어 자료, 제주의 문화와 기후에 따라 변화하는 제주의 모습 멀티미디어 자료
- 학생 : 제주옹기에 대한 조사자료, 또는 실체물, 조사학습지

④ 지도상의 유의점

- 제주옹기를 통해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 개방적인 발문을 활용하도록 한다.
- 미리 준비되고 예습 된 자료가 있을수록 수업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사전 지도, 및 예습과제를 주어 충실한 수업이 되도록 한다. 자료 수집이 불가능 할 경우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도 활용한다.
-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자연환경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관찰하여 새롭게 학생들로 하여금 조형 요소와 조화, 변화, 균형의 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표 4> 교수·학습 과정안(제주용기를 관찰하고 제주 문화의 멋을 느끼기)

단원	제주용기와 제주 문화의 아름다움을 찾아		관련 단원	1-1. 아름다운 자연환경
학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용기와 제주문화에서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발견하고 특징 이해하기 계절에 따른 자연을 관찰하며 살아있는 제주의 멋 느끼기 		차시	기초(1-2/6)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용기와 문화에서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발견하고, 제주 문화의 멋을 느껴본다.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기유발 영상자료를 보며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 찾기 제주용기의 특징 알아보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패드 ★실물화상기 ※브레인스토밍등을 통해 제주용기와 제주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갖도록 한다.
	학습 문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문제 확인 제주용기와 제주의 문화에서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발견하고, 제주문화의 멋을 느껴봅시다. 		
전개	조형 요소와 원리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용기에서 볼 수 있는 조형 요소 및 조형 원리 찾기 교사가 제시하는 자료들을 통해 활동지에 정리하고 발표하기 모둠별로 학생들이 준비한 자료에서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찾고 분류하기 제주의 독특한 문화 및 특징 찾기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용기 관련자료 ★ 4절지, 메모지 ※제주용기의 특징과 제주문화의 상관을 짚어본다.
	제주의 멋 느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문화의 멋을 느껴보기 계절에 따른 제주의 문화 모습 알아보기 같은 장소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습 알기 색으로 제주의 멋 표현하기 	30	★4절지, 채색도구
정리	감상 및 정리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 감상하기 친구들과 감상할 관점 이야기하기 작품 설명 및 친구 작품 감상하기 학습에 참여한 느낌 발표하기 학습정리: 제주 사람들의 옛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독특한 제주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 갖기 	10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친구의 작품을 긍정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용기의 특징과 제주 자연만의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찾을 수 있는가? 계절에 따른 제주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고 제주 문화의 멋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2) 제주옹기 공예 알아보기

① 학습목표

- 제주옹기 공예를 통해 제주옹기의 가치를 이해하고, 직접 제주 흙을 이용해서 제주의 생활용품을 완성할 수 있다.

② 학습내용

- 제주옹기 공예를 통해 제주옹기의 가치 이해하기
- 제주 흙의 특징과 옹기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생활용품 만들기
- 제주옹기와 제주 흙을 통해서 제주 전통 문화의 소중함 깨닫기

③ 재료 및 용구

- 교사: 제주옹기의 사진, 멀티미디어 자료, 제주 흙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 제주 흙(충분히 주문한다.), 부조판, 실, 비닐
- 학생 : 제주옹기에 대한 조사자료, 앞치마, 팔토시 등

④ 지도상의 유의점

- 교사가 미리 제주옹기 제작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적절한 수업내용을 선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주제선택에 용이하도록 안내한다.
- 제주옹기의 종류와 쓰임새를 알고 옛 조상들의 다양한 생활용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제주 흙을 충분히 만지게 함으로써 질감과 촉감이 활용되는 수업이 되게 하고 제주 흙의 가치를 잘 안내하도록 한다.
- 미리 준비되고 연습 된 자료가 있을수록 수업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사전 지도, 및 연습과제를 주어 충실한 수업이 되도록 하며 제주옹기의 특징과 제주 흙의 특별함에 대해 알아본다.
- 이 활동을 통해 제주의 전통 공예에 대해 배우며 제주 향토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표 5> 교수·학습 과정안(.제주옹기 공예 알아보기)

단원	제주옹기와 제주 문화의 아름다움을 찾아		관련 단원	5-1. 내가 만드는 생활용품
학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옹기 공예를 통해 제주옹기의 가치를 찾아보며 생활용품 만들기 • 제주 흙의 특별함과 가치를 이해하기 		차시	기초(3-4/6)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옹기 공예를 통해 제주옹기의 가치를 이해하고, 제주 흙을 이용해서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용품 특징 비교하기 - 제주옹기 생활용품 종류, 쓰임새 알아보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자료 ★실물화상기 ※브레인스토밍등을 통해 제주옹기와 제주 흙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갖도록 한다.
	학습 문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문제 확인 제주옹기를 공예를 통해 제주옹기의 가치를 이해하고, 제주 흙을 이용해서 생활용품을 만들어 봅시다. 		
전개	제주옹 기의 가치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옹기를 활용한 전통 공예와 오늘날 생활용품 비교하기 - 모둠별로 교사가 제시하는 두 비교 자료를 보고 장단점을 정리하기 - 장단점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 - 작품 감상하기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상들의 옹기 생활용품 자료 ★ 활동지 ※제주 흙의 특징과 제주옹기의 상관성 짚어본다.
	생활 용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흙을 이용해 생활용품 만들기 - 제주 흙의 특징을 알고 제작하기 - 옛 조상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생활용품 제작하기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흙, 채색도구
정리	감상 및 정리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하기 - 친구들과 감상할 관점 이야기하기 - 작품 설명 및 친구 작품 감상하기 - 학습에 참여한 느낌 발표하기 - 학습정리: 제주옹기와 제주 흙의 소중함을 알고 공유하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친구의 작품을 긍정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옹기의 전통 공예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가? • 제주 흙의 특징을 이해하고 가치를 정리할 수 있는가? • 제주 흙을 이용해서 생활용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가? 			

3) 제주옹기 관련 생활모습을 수채화로 표현하기

① 학습목표

- 제주옹기를 사용하고 지내는 제주의 전통적인 생활모습을 수채물감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② 학습내용

- 수채화의 특징 알기
- 제주옹기와 조상님들의 생활모습 알아보기
- 제주 전통 풍경을 수채화 기법으로 표현하기

③ 재료 및 용구

- 교사: 조상님들의 생활모습 사진, 멀티미디어 자료, 수채화 용구, 4절 썬트지, 수채화 관련 자료
- 학생 : 제주 전통 생활모습 조사자료, 앞치마, 팔토시, 수채화 용구 등

④ 지도상의 유의점

- 수채화의 경우 고학년들도 재료 및 용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잘 숙지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 뒤 활동에 임한다.
- 물의 양, 물감의 양, 번지기 및 겹치기 효과, 투명 및 불투명 표현의 차이, 명암, 원근감 등의 수채화 기법으로 표현 가능한 다양한 느낌을 충분히 탐색한 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채물감은 원색에 무채색을 섞으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투명한 효과를 나타낼 때에는 물의 양을 조절하여 투명한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제주옹기를 사용하는 옛 조상들의 다양한 생활모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미리 준비되고 예습 된 자료가 있을수록 수업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사전 지도, 및 예습과제를 주어 충실한 수업이 되도록 하며 제주 전통 생활모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제주 전통 생활모습을 표현하고, 학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주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표 6> 교수·학습 과정안(.제주옹기 관련 생활모습을 수채화로 표현하기)

단원	제주옹기와 제주 문화의 아름다움을 찾아		관련 단원	4-2. 수채화의 느낌을 살려
학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채화의 특징 알기 • 제주 전통 생활모습의 아름다움 느끼기 • 생활모습을 수채물감으로 표현하기 		차시	심화(1-2/6)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제주의 전통 생활모습을 수채물감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 ‘성읍민속마을’ 관련 영상자료 보기 - 제주의 전통 생활모습 발표해 보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자료 ★ 실물화상기 ※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제주 전통 생활모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학습 문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문제 확인 아름다운 제주의 전통 생활모습을 수채물감으로 표현하여 봅시다. 		
전개	제주옹 기의 가치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채화의 특징 알기 - 교과서에 제시된 수채화 작품들을 보며 특징 살펴보기 - 수채화 기법 탐구하기 -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채화 기법 사용하기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관련 수채화 자료 ★ 활동지 ※ 수채화의 다양한 기법을 흥미롭게 제시한다..
	생활 용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전통 생활모습 표현하기 - 수채화 용구의 올바른 사용법 알기 -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수채화의 효과가 잘 드러나도록 구도 잡고 그리기 - 활동 후 깨끗하게 주변 정리하기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색도구, 켄트지
정리	감상 및 정리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하기 - 친구들과 감상할 관점 이야기하기 - 수채 표현에서 의도대로 잘 되었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 이야기하기 - 제주의 전통 생활모습 발표하기 - 학습정리: 제주의 전통 생활모습을 기억하고 보존해 나가자. 	10	※ 다양한 수채표현을 통해 미술의 재미 알기(어려웠던 점 깊이 파지 않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채화의 특징을 살려 제주의 전통 생활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가? • 제주 옹기가 전통 생활모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고 있는가? 			

4) 제주옹기와 제주의 특성을 살려 아름답게 꾸미기

① 학습목표

- 친구들과 협동하여 교실과 학교에서 변화가 필요한 공간을 찾고 제주옹기와 제주의 특성을 살려 아름답게 꾸민다.

② 학습내용

- 변화가 필요한 공간 찾기
- 제주옹기와 제주의 특성을 살려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기
- 제주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 알기

③ 재료 및 용구

- 교사: 조상님들의 생활모습 사진, 멀티미디어 자료, 색상지, 부직포, 칼, 가위, 풀, 테이프, 색연필, 크레파스, 매직 등
- 학생 : 제주 전통 생활모습 조사자료, 구상도, 가위

④ 지도상의 유의점

- 생활공간을 바꾸기 전에 미리 꼼꼼하게 계획하도록 한다.(구상도 검사)
- 의견을 나눌 때에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도록 한다.
- 친구들과 상호 협동을 통해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으도록 한다.
- 학교 공간을 직접 꾸미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모뎀작품 전시활동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 재료 및 용구는 학급의 비품 중 어떤 것이라도 활용 가능하나 사인펜과 같이 물이 닿으면 잘 지워지고 햇볕에 색이 바래는 등 오랜 기간 장소를 꾸미는 데에 부적합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미리 준비되고 연습 된 자료가 있을수록 수업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사전 지도, 및 연습과제를 주어 충실한 수업이 되도록 하며 제주 전통 생활모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제주 전통 생활모습을 표현하고, 학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주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표 7> 교수·학습 과정안(제주옹기와 제주의 특성을 살려 아름답게 꾸미기)

단원		제주옹기와 제주 문화의 아름다움을 찾아	관련 단원	7-2. 평범한 공간을 아름답게
학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가 필요한 공간 찾기 • 제주옹기와 제주의 특성을 살려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기 • 제주 전통 생활모습의 아름다움 느끼기 	차시	심화(3-4/6)
학습 목표		• 친구들과 협동하여 변화가 필요한 공간을 찾고 제주옹기와 제주의 특성을 살려 공간을 아름답게 꾸민다.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 제주와 관련해 아름답게 꾸며진 공간 살펴보기 - 벽화, 건물, 조각 등 제주를 소재로 아름답게 꾸민 공간 관찰하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자료 ★ 실내, 학교 주변 사진 ※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공간활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학습 문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문제 확인 친구들과 협동하여 변화가 필요한 공간을 찾고 제주옹기와 제주의 특성을 살려 공간을 아름답게 꾸민다. 		
전개	공간 찾고 구성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이나 교내 중 변화가 필요한 공간 찾기 - 구석구석 살펴보기, 아이디어 모으기 • 결정된 장소를 정하고 아이디어 구상하기 - 아이디어 스케치 하고 재료 정하기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옹기를 활용한 공간활용 자료 ★ 활동지 ※ 협동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로 존중하도록 한다.
	공간 꾸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전통 생활모습을 담아 꾸미기 -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생각한 아이디어로 꾸미기 -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협동학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즐겁게 활동하기 - 활동 후 깨끗하게 주변 정리하기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미기재료 ※ 칼, 가위 사용 시 주의하도록 한다.
정리	감상 및 정리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 및 체험하기 - 친구들과 감상할 관점 이야기하기 - 아름답게 변화한 공간을 살펴보고 어떤 점을 표현했는지, 어떤 점이 창의적인지 이야기 나누기 - 학습정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미적 안목을 기르기 	10	※ 다양한 수채표현을 통해 미술의 재미 알기(어려웠던 점 깊이 파지 않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가 필요한 공간을 찾을 수 있는가? • 아름다우면서 제주옹기와 제주의 특성을 잘 살려서 꾸몄는가? 			

5) 제주옹기를 지켜가는 장인들에게 편지쓰기

① 학습목표

- 제주옹기의 존재가치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이해한다.
- 장인들에게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는 편지를 쓸 수 있다.

② 학습내용

- 다양한 제주옹기의 종류와 쓰임새를 알고 제주옹기의 특성을 이해하기
- 작품을 감상하고 장인들에게 편지쓰기
- 제주옹기의 가치와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 알기

③ 재료 및 용구

- 교사: 실물화상기, 제주옹기 관련 생활모습 사진, 멀티미디어 자료, 감상활동지, 편지 활동지, 색연필

- 학생 : 필기도구,

④ 지도상의 유의점

- 편지지와 편지 봉투를 만들 때에는 단지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감상 및 편지의 내용과 관련 갖고 시각적으로 나타내도록 지도한다.
- 작품 감상은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떠오르는 단어쓰기, 작품에 사용된 조형 요소 찾기, 작품에 대해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등 감상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충분히 활용하여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주옹기의 다양한 작품 감상활동이 작품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고장 제주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친구들이 장인들에게 쓴 편지를 감상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 할 때에는 조형 요소와 원리 등 미술 용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 상호평가를 할 때 긍정적인 점을 부각시키고 노력이 필요한 점을 상대를 생각해서 말할 수 있도록 연습 시킨다.

<표 8> 교수·학습 과정안(제주옹기를 지켜가는 장인들에게 감사 편지쓰기)

단원	제주옹기와 제주 문화의 아름다움을 찾아		관련 단원	6-1. 작가에게 쓰는 편지
학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옹기의 의미와 감사함을 알기 • 작품을 감상하고 장인에게 감사의 편지쓰기 		차시	기초(5-6/6)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옹기의 의미와 감사함을 알 수 있다. • 제주문화를 지키는 장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쓸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 제주옹기 문화를 지켜가는 장인들 알아보기 - 다양한 제주옹기 문화를 살펴보기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자료 ★ 장인소개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공간 활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학습 문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문제 확인 제주옹기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제주문화를 지키는 장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		
전개	작품 감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감상 방법으로 감상 활동지 작성하기 - 감상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알고, 옹기의 종류와 쓰임새 등을 정리하기 • 감상평을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상호 평가하기 -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상지 ★ 활동지 ※협동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로 존중하도록 한다.
	장인에게 편지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전통을 지키는 장인들 알아보기 -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편지와 편지봉투 그리고 꾸미기 - 꾸민 편지 위에 감상 활동지 내용을 중심으로 장인에게 감사의 편지쓰기 - 활동 후 깨끗하게 주변 정리하기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미기재료 ※칼, 가위 사용 시 주의하도록 한다.
정리	감상 및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하기 - 조형 요소와 원리 등 미술 용어를 사용하며 서로의 작품에 대해 감상, 발표하기 - 친구들이 좋아하는 옹기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하며 옹기의 가치와 장인들의 고마움 새기기 - 학습정리: 전통문화를 지키는 장인들에게 감사함 갖기 	10	※발표 시 미술용어를 사용하여 익숙해지도록 한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기작품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미술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는가? •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편지의 내용에 어울리게 편지와 봉투를 꾸몄는가? 			

6) 미술관에서 제주옹기와 제주 특색 찾아보기

① 학습목표

- 고장의 미술관을 알아보고 이들 장소와 전시의 특징 중 제주옹기와 제주특색이 드러나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 제주 전통 문화의 멋을 느낄 수 있다.

② 학습내용

- 제주도내 미술관을 알아보고 제주옹기와 제주의 특색이 드러나는 부분 찾기
- 작품을 감상하고 제주 전통 문화의 멋을 찾아보기

③ 재료 및 용구

- 교사: 제주도내 미술관에 대한 정보(사진, 소책자, 누리집 주소 등)
- 학생 : 패드 및 컴퓨터수업

④ 지도상의 유의점

- 제주도내 미술관 중 어떤 곳을 소개하고 수업에서 어떤 특징을 중심으로 가르칠지 교사가 미리 준비하고 수업에 임한다.
- 수업 중 컴퓨터가 필요한 시간 외 컴퓨터 사용을 금지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때에도 학습 내용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 미술관에 방문할 때 관람 예절을 반드시 지켜 관람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제주옹기의 다양한 작품 감상활동이 작품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고장 제주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감상활동을 통하여 제주옹기와 제주의 특색을 이해하고 우리 고장 제주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 문화를 보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표 9> 교수·학습 과정안(미술관에서 제주옹기와 제주 특색의 드러나는 부분 찾기)

단원		제주옹기와 제주 문화의 아름다움을 찾아	관련 단원	12-2 멀고도 가까운 미술관
학습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옹기를 소재로 하는 작품 이해하기 • 제주도내 미술관을 알아보고 제주의 특색이 드러나는 부분 찾아보기 	차시	심화(5-6/6)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장의 미술관을 알아보고 이들 장소와 전시의 특징 중 제주옹기와 관련한 제주의 특색이 드러나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 내가 다녀온 미술관과 관람했던 전시에 대하여 발표하기 - 제주옹기가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을 알아보고 제주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미술관도 찾아본다.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자료 ★ 전시자료 ※사건 발표를 통해 관람 시 주의사항을 지도한다.
	학습 문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문제 확인 고장의 미술관을 알아보고 이들 장소와 전시의 특징 중 제주옹기와 관련한 제주의 특색이 드러나는 특징을 찾아봅시다. 		
전개	미술관 알아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고장 미술관과 전시에 대해 알아보기 - 발표를 통해 미술관 관람 예절 알아보기 - 제주도내 미술관 정보 및 전시와 관련된 정보 공유하기 • 미술관 및 전시의 특징 중 제주옹기와 관련한 제주의 특색이 드러나는 부분 찾기 - 미술관 관람 계획하기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관 및 전시자료 ★ 활동지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사이버 미술관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 미술관 방문하기 - 제주도내 미술관들의 누리집을 방문하여 다양한 작품 감상하기 -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고르고 고른 이유와 함께 발표하기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드, 컴퓨터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정리	감상 및 정리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 및 체험하기 - 친구들과 감상할 관점 이야기하기 - 고장의 미술관에 대해 알게 된 점, 가보고 싶은 전시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우리 고장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 다지기 - 학습정리: 아름다운 제주, 그 안에서의 미술 감상에 대한 방법 찾아보기 	10	※다양한 작품들과 각자 개인의 취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장의 미술관 및 전시의 특징 중 제주옹기와 관련한 제주 특색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가? • 사이버 미술관에서 작품 감상을 한 뒤 원하는 작품을 고르고 이유와 함께 발표할 수 있는가?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세계화 교육과 더불어 지역화 교육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요즘 추세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독특성 있는 제주의 옹기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옹기의 개념과 종류, 쓰임새에 대하여 알아보고 전통문화를 미술과 교육과정에 지역화 내용으로 재구성하고 이에 따른 교수 학습 과정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국가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를 본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생과 지역사회의 실정을 반영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강조되고 있음에도 현실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살펴보면 제시되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그대로 따르는 관행적 태도를 취하거나 학생, 학교, 지역사회 등의 요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교육과정 지역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화산섬이라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지방과는 다른 문화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옹기를 탐구하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고장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미 습득한 지식들에 대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할 것이다. 미래를 주도해 나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독창적이고 고유한 문화유산의 전수일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미적감수성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고장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옹기와 관련된 논문, 잡지, 문헌연구, 전시회를 통해 제주옹기에 대한 이론을 마련하였으며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하고 제주옹기를 활용한 미술과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상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들이 제주옹기를 통해 지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전통문화 고유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둘째, 제주의 자연과 고유한 문화에 대해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낄 수 있으며 이론을 배우고 직접 옹기를 제작해 봄으로써 작품에 대한 표현 의욕을 높이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이끈다.

셋째, 한 주제에 대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미술 표현활동을 하면서 그 대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미술과 전 영역에 대한 아동들의 표현 능력을 이끌고 미적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

제주 조상들의 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제주옹기는 우리의 슬기로운 지혜이며 자랑스러운 문화이다. 제주옹기를 통한 지역화 미술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미술표현을 하며 제주의 전통문화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미적 감수성과 그에 대한 전반적인 표현능력의 발전을 유도하며 더 나아가 고장의 자연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제주의 특성에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제주 환경의 아름다움이나 전통문화의 가치 등을 깨닫고 미적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참 고 문 헌

- 이청규. (1995) **제주도고고학연구**. 학연출판사.
- 정병락. (1998). **용기와의 대화**. 동광출판사.
- 제주도문화체육과. (1997). **민속유적**. 제주도문화체육과.
- 제주도. (1998). **제주의 문화재**. 제주도.
- 강창언/이경효. (2000). **제주 전통도예**. 가시아히 출판사.
- 제주문화원. (2004). **제주문화**. 제주: 제주문화원.
-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2004). **제주문화의 향기**. 제주: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국립제주박물관. (2005).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국립제주박물관.
- 이영자/배두식. (2006). **용기**. 열화당.
- 진관훈. (2007). **제주의 민속문화 3 - 제주용기**. 제주국립제주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 (2007). **허벅과 제주질그릇**. 제주국립민속박물관.
- 교육과학기술부. (2007).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 교육과학기술부. (2007).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미술과)** 대한교과서.
- 교육과학기술부. (2010). **미술 5-6학년**. 두산동아.
- 오창운. (2010). **제주문화 제주용기**. 솔과학.
- 노부자 외 5인. (2014). **초등학교 미술 5-6학년 교사용 지도서**. 두산동아.
- 김종훈. (2001).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지역화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동분. (2004). **초등학교 감상수업을 위한 비평적 탐구학습의 적용방안 모색**.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숙경. (2007). **제주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미술 감상교육 연구**.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선. (2010). **제주도 용기가마의 구조와 그 연원**. 충북대학교대학원.

A B S T R A C T *

A Study on Art Localization Method of Art Education through Jeju Onggi

- Focusing on the Fifth and 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

Kim, ki young

Major in Elementary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im, Choon Bae

The trend nowadays emphasizes global education and localized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unique pottery of Jeju, both of which are becoming recogniz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 sorts, and uses of pottery, and focuses on presenting a education plan by recreating the traditional culture with localized contents of art and education plans.

Because Jejo Island is a volcanic island and has unique natural environments, its culture differentiates from other regions. Activities exploring the traditional culture and pottery of Jeju will not only

increase the interest of students on this region, but also give the students a wider view on the knowledge they have acquired. Students need to learn creative and unique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lead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students an artistic sensibility that enables them to see the nature and culture of regions in a beautiful way, the ability to express this sensibility, and a heart that loves the region they live in.

The expected education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 acquire interest toward the region through Jeju Onggi, and furthermore, get to think about the beauty of traditional culture.

Second, the beauty and value of Jeju's nature and traditional culture will be acknowledged, and a lesson will be led in order to encourage the desire to express art and gladly participate in the class by actually making Jeju Onggi.

Third, by doing various art expression activities on one theme,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the understanding of a certain subject, draw out the expression abilities of children in all artistic areas, and increase their artistic sensibility.

Jeju Onggi, which preserves the spirit of ancestors who lived in Jeju, are our wisdom and proud culture. Localized art education using Jeju Onggi helps students express art in various ways, gives them artistic sensibility that enables them to see traditional culture in a beautiful way, and also draws out their general ability to express things. This will help students acquire the heart to cherish our own nature and culture.

Keyword: Jeju Onggi, traditional culture, localized education